



## 제12회 우수사슴선발대회 성료

- 60여두 경합, 28.315kg의 '우성 2호' 최고 사슴 등극 -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양토양육조합 등이 후원한 제 12회 우수사슴선발대회가 지난 7월28일 서울 제기동 소재 경동한방플라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녹용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해 온 우수사슴선발대회에는 올해 역대 최다 두수인 총 60두의 우수사슴이 참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올해 영예의 대상에는 대전 소재 우성사슴농장(대표 한은섭)의 우성 2호가 차지했다. 28.315kg으로 국내 공식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우성 2호는 녹용생산량과 품질, 사슴개체 심사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꽃사슴 최우수상은 무안사슴농장(대표 이정안)의 무안 2호가 차지했다.

분야별 최우수사슴에는 △ 생산량 부분 : 우성사슴농장(대표 한은섭) 우성 2호 △ 회분율부분 : 백련사슴농장(대표 최규갑) 백련 2호 △ 상대비율부분 : 청심사슴목장(대표 안준호) 청심만호 △ 사슴개체부분 : 삼삼사슴농장(대표 이영) 삼삼 1호 △ 녹용외관부분 : 속리산사슴농장(대표 구권회) 아시호가 각각 차지했다.

참관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참관인선정 최우수상은 천석사슴농장(대표 이세구)의 천



석 1004호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본회 김수근 회장은 “국내 사슴농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슴의 개체 능력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시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사슴이 축산법상 개량대상 축종으로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루속히 법령을 정비, 사슴도 정부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개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엘크 사슴의 경우 두당 평균 녹용 생산량은 8~9kg으로 북미지역 엘크 사슴에 비해 3~4kg 가량 능력이 뒤쳐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양일보**